



제6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 기 집

우 리 의 성 장 이
따 뜻 한 세 상 을
만 들 어 갑 니 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비전 |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

**목적 | 리더십, 혁신적 사고와 경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전문가 양성**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6기 발자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2차 캡스톤 발표

수료식

교육과정 진행

해외방문연구조사





제6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기집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끓는 점이였다

김경화
한국여성재단



3년 동안 꿈꿔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된 때부터 도전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 버킷리스트에 포함될 정도로 나에겐 꼭 가고 싶은 여행지와도 같았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느낀 설렘은 대학 새내기가 되어 꽃 피는 캠퍼스를 누비는 설렘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 설렘과 기대, 긴장감을 갖고 시작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드디어 수료하게 된다. 4년 만에 꿈이 이뤄진 것이다.

16년 동안 무조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면 되는 줄 알았다. 순간순간 나태해질 때도 있었지만, 묵묵히 열심히 달렸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등 문득 떠오르는 단상들을 정리하지 못했다. 머리 속에서 흩어지는 단상들을 모아 정리하고, 갈무리하고 싶었다. 그러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었다.

영접절에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을 마치고, 첫 교육이 있던 날,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읽어야 할 글들과 과제가 포함된 교수님의 메일이 도착했다. 이상하게 정말 신났다. 오랫동안 준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가 이륙하기만을 기다리는 신남과 설렘이랄까. 고대하던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전략 모듈을 시작으로 간질거리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리더십 모듈, 격주마다 내 한계를 시험하게 되는 캠프스톤, 큰 해머로 바위를 깨뜨리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씽킹 등. 가끔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아 좌절하기도 했고, 업무와 병행하는 과정에서 지칠 때도 있었다. 아무리 기대한 여행이더라도 익숙지 않은 환경에 스트레스로 지칠때가 있는 것 아닌가. 때로는 낯선 길을 찾아야하는 긴장감과 피로감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계획했던 여행을 모두 마쳤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수료한 지금, 머릿속의 흩어지던 단상들이 정리되었는가를 자문해본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여전히 혼란은 남아있다. 16여 년간 자리 잡았던 단상들이 어떻게 몇 개월만에 정리될 수 있겠는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경험이 언젠가 분명히 발현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 중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16년간 한 직장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처음으로 이직을 한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이직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끓는 점이 100도인 것처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 이력의 끓는 점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끌어올린 열정의 온도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또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기억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해 준 아산나눔재단 직원들과 과정을 끝까지 함께해 준 동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지만, 변하지 않는 그저 그런 아재가 되는 것이 싫었다!

김기수

남양주시남부희망케어센터



독수리의 수명은 70~80년이라 한다. 독수리는 40년을 살고 나면 계속 살 것인지, 그냥 죽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40년을 살면 독수리의 부리는 밑으로 구부러 들고 발톱도 오그라들며 날개는 무거워져서 날 수도 없게 된다. 즉, 생존할 수 없는 몸이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결정을 해야만 한다. ‘살아야겠다’고 결심이 서면 깊은 산으로 들어가 크고 단단한 바위에 자기의 부리를 찢고 찢어서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큰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현 부리가 빠지면 새 부리가 나며 그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뽑는다. 그리고 무거운 날개의 깃털 하나하나를 다 뽑아낸다. 그 인고의 기간이 180일이 걸린다고 한다. 고통과 인내 속에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난 독수리는 다시 하늘의 제왕이 되어 유유히 하늘을 날며 30년을 더 산다고 한다.

해외방문연구조사 기간을 제외하면 180일, 6개월이다. 6개월이지만 짧고 굵게 대학원 5학기 수업보다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과정이 지난 지금,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다. ‘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좀 더 치열하게 날 담금질 하지 못했을까?’

각 기관에서는 관리자들이지만 캡스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하여 학생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언제 또 이렇게 배우는 학생으로서 만날 수 있을까? 캡스톤 프로젝트 주제 특성상 일본과 미국, 두 개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것과 기관 섭외 및 숙박 예약 등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배우게 했다. 나라별 환경은 달랐지만 재정자립도, 세금비율, GNP, GDP를 떠나서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맞고, 틀리기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을 수 있게 끊임없이 검토하고 제안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어렵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적용할 최선의 선택을 찾고자 했다.

7개월간 같은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한 동기분들. 이 과정에서 특히 아세내(아름다운 세상은 내가 만든다)와 먼 타지에서 함께한 12일간의 연수 열정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과정이 끝나더라도 필독서들을 다시 읽으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업을 복기(服忌)하고 싶다. 세상에 좋은 그리고 착한 사람은 많다. 나와 인연이 어떻게 닿느냐가 중요하지만 2017년 마무리 단계에서 새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인연이 된 교수님들과 6기 동기들에게 내가 좋은 인연이기를 바라본다.

끝으로 아는 척 하지 말고, 그저 캡스톤을 통하여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고 더욱 겸손하라고 말씀해주신 김상범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되새기며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아세내 조원들과 교육 기간 내내 도움을 준 교수님들과 아산나눔재단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17년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해로 각인

김대중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약수역 1번 출구를 나와서 조금 걷다 보니 어느덧 옮긴 지 4년이 좀 지난 아산나눔재단의 건물이 보인다. 오늘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0기의 입학식이 있는 날이다. 우수한 선배인지, 가장 시간이 많은 선배인지 모르겠지만 재단의 초청을 받아 올해 들어서는 지난 면접위원 참석 이후 한 달 만에 방문이다. 이젠 면접을 볼 때 재단 직원과 교수진 뿐만 아니라 선배 중에서도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한다. 선배라고 봐주는 것이 없이 일과 교육을 혹독하게 겪어야 해서 오히려 더 깐깐하게 평가한다고 소문이 났고, 지난 9기 때는 급기야 면접 중에 물어버린 지원자가 10명이 넘어서 재단 측의 경고까지 들어야 했다. 리더십 과정을 책으로 낸 뒤 한 달째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방대욱 대표님은 지원자가 올면 마음이 약해져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셨지만 캡스톤 수업을 견뎌내려면 벌써 올면 큰일이라고 생각되어서인지 선배들은 점수를 짜게 주게 된다. 재단이 가까워지자 묘하게 4년 전 그때로 돌아간 듯 긴장되고 떨리기 시작한다. 예전에도 누가 동기가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함께 면접을 봤던 분들의 결과도 궁금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OT로 통일된 이후 설립한 평양에 있는 아산나눔재단 수련원까지 먼 길 갈 생각에 다시금 가방을 추슬러 본다.

이번 10기는 300명을 채우기 위해 다른 기수보다 인원이 5명 많다. 덕분에 다들 때보다 훨씬 더 북적이는 느낌이다. 아산홀에 들어서니 입구에 청와대에서 보낸 화환이 눈에 띈다. 대통령이 축하 동영상도 보냈다고 하던데...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자살률 감소와 통일 이후 남북 격차 해소 등 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문까지 합세해서 좋은 결과를 냈더니 이젠 동문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올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떠돌더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기 때는 6기 중에 2명이나 교수진으로 내정이 되어 새로운 모듈을 개발에 있다. 이번 OT때 달같이 아닌 타조 알을 안 깨뜨리는 거로 과제를 내졌다고 했는데 진짜일까? 또 올해부터는 캡스톤의 경우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 궁금해진다.

아! 이제 행사가 시작되려나 보다. 나름 갖춰 입고 왔지만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를 걸 대비해서 배에 힘 좀 주고 있어야겠다. 작년에 옆모습 찍힌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 갔다가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던 아픈 기억을 올해 또 당할 수 없다. 특히 도시락 먹은 이후 조심해야 한다. 이번 기수는 처음으로 경쟁률 3자리 수를 극복하고 선발된 만큼 기대가 많이 된다. 어느덧 전설이 된 B.O.X를 뛰어 넘는 훌륭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이 좋은 기회를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제공되길 바라며...!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뤄질 수 있다

김미경
(사)더라이트웍스



세계적인 커리큘럼과 강사진

7개월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 설렘과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우선, 비영리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프로그램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다. 늘 배우고 싶었던 전략, 마케팅, 재무회계, 인적자원, 리더십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사회혁신, 디자인씽킹, 그리고 캡스톤 수업까지... 하나도 빼거나 줄이고 싶은 수업들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수업들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여력만 된다면 7개월이 아닌 12개월의 커리큘럼도 좋을 것 같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자신은 정작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특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나 스스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성하고 깨닫게 만든 수업은 캡스톤이었다. 첫 수업부터 예상롭지 않았는데 마지막 수업까지도 내가 제대로 캡스톤을 이해하는지 자신이 없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전략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태업하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불편함을 견디는 나의 방식이 무엇인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29명의 동기들을 거울 삼아 나의 리더십 모습을 투영하게 되었다.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뤄질 수 있다
리더십 교육 때 배운 선례들을 하나하나 적용해나가는 재미도 있었다. 젊은 사회혁신가들과 대화할 땐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기관의 사업과 연계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6기 동기들뿐만 아니라 이전 기수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선 끈끈한 연대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비영리 섹터에서 같은 고민과 꿈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 한 명이라도 더 얻을 수 있어 너무 반가웠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최대 장점은 단지 한 해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맺은 인연들이 내년 내후년 영속해서 이어지는데 있는게 아닐까?

과도한 감사만큼 아름다운 지나침은 없다

늘 우리들의 안전과 안락을 위해 애써주신 아산나눔재단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기관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7개월 동안 과정을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과 6기 동기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한다.

내가 좋아하는 마더 테레사의 말이 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2017년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벅차고 감동적인 한 해였다. 6기 동기들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나간 시간의 의미, 가장 바빴던 2017년을 보내며

김승혜
(재)푸른나무청예단



수로 수기라고 하니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생각하며, 지나간 시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2017년 1월은 직장에서 그동안 일했던 부서의 총괄을 맡은 첫해였다.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니고 가야하는 것에 대한 무게는 생각보다 컸고, 고민도 많아지면서 앞으나 서나 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쯤 되면 대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텐데, 나는 왜 그런 생각보다 새로운 자극, 환경, 관계를 꿈꿨는지... 이전부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해 초에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하기 어려운 여건이고 더 바쁜 일정이었는데도 그때는 ‘해보고 싶다’, ‘지금 아니면 못할 거 같다’는 생각 하나로 지원하게 되었다.

첫 OT부터 접친 출장 일정 때문에 첫 인상에 대한 걱정도 되고, 빠져야는 시간이 캡스톤 시간인 것을 확인하고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제주도에서 강의를 마치자마자 부리나케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남양주로 들어오던 시간이 어찌나 초조한지...

그렇게 만나게 된 지금의 1조,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또다른 관계와 연결망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들과 프로젝트로, 연수에서 장기 투숙을 함께 한 동지로 또 다른 공감대와 추억을 만들게 되었다. 서로 다르게 생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성도 주장도 강한 6명이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리더십의 실천이었을거라 생각한다. 누군가 더 권한을 갖거나 태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닌 이 안에서 전혀 다른 6명이 어우러지려고 노력한 점, 각 기관에서 중간 간부 이상인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서로 공평하게 역할을 나누어 임하는 것도 흔히 하는 말인 ‘역자사지’를 해본 엄청난 경험이지 않을까?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안되기도 했지만,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공감되는 시간에 감사하며 당장 내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보았다. 수기를 쓰는 지금, 다시 떠올리니 그 의미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좀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나온 시간들에 감사한다. 그 시간이 나에게 선사한 배움과 새로움, 지침과 벽참, 피곤과 한계 모두를 내가 경험하며 느낄 수 있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가장 바쁜 사람이 많은 시간을 얻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대가를 얻는다’ 라는 말처럼 나는 가장 바쁜 2017년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 보냈고 많은 시간을 얻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도 얻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했다고는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에 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본다. 단순히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보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나 스스로와 경쟁하고, 지쳤을 때 격려하며 극복하는 과정들과,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과 희열을 대가로 얻었기에 무엇보다 이 지나온 시간은 나의 앞으로의 시간에서 아주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는 나에게 가장 바빴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얻게 해준 시간이고 의미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간직한 그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승훈
해솔직업사관학교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을 한 것 같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수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기에 망설임이 들기는 했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성장할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 신청했다.

10년이 넘도록 북한이탈 청년들과 지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늘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상당히 지쳐있었다. 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약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들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부족한 나의 모습만 자꾸 발견하게 된 것 같다.

그러던 중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한 과정이었다. 일을 하다 중간에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것부터 나에게는 또 하나의 훈련이었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많은 교수님들의 수업은 매번 들어왔던 내용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새로운 배움의 장을 열어준 시간이었다. 또한, 배운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고민하는 시간은 오랜만에 가져보는 설렘의 시간이었다.

캡스톤은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경험이었다. 조원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회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언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7개월 동안 좀 더 열정적이고 집중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무엇보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챙겨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운영진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지친 모습을 이끌고 교실로 들어설 때 마다 웃음으로 반겨준 그분들의 섬김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나에게 준 가장 큰 배움이었다.

7개월 동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이사장님과 해솔직업사관학교 식구들, 그리고 우리 6기 동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3조 소셜 어벤저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했고 감사했습니다.”



온도, 새롭게 다가온 그 의미

김시아
한림화상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고 기뻐했던 7개월 전으로 순간이동하며, 그동안 쓰고도 달았던 배움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일에만 매몰되어 있던 때, 리더십과 팔로워십, 혁신기관 방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 해외방문연구조사 등을 배울 기회는 매우 감사하고 즐거우면서도 비명이 절로 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영역의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통찰하게 하였고, 일과 사람이란 영역에서 균형 잡힌 리더십을 생각하고 성찰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던 좁은 시야가 보다 넓혀졌으며, 디자인씽킹 수업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가는 사람 중심 프로세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캡스톤 수업과 프로젝트는 결의에 찬 각오와 차가운 머리로만 시작하려 했던 나에게, ‘온도’라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입학 포부 발표와 Ignite를 시작으로 30명의 인연을 만났고, 수업시간마다 민낯을 드러내듯이 나 자신과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낯선 나, 숨기고 있던 나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진심이 담긴 서로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략적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 각자의 고유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과정이라 언어, 시각, 대화, 배움 등의 온도는 서로에게 밀접하고도 다양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6명의 캡스톤 팀원들과 아직 사회문제로조차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 캡스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에 집중하고 깊게 고민하고 가치있는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나누던 시간들은 프로젝트의 성과보다 소중하게 남겨질 거 같습니다. 팀 온도를 높이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고 후회했던 리더십 실천 경험은 보다 나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략적 리더십 실천을 위해 자기 자신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상황을 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김상범 교수님의 말씀은 오랜 기억 속에 기도문처럼 남을 거 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배운 전략적 리더십 실천은 앞으로도 나를 알아가는, 세상을 알아가는,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순간 한 조직의 구성원이자 리더로, 내 삶의 리더로 외로운 길 마주할 때마다 ‘온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hanks to

배려와 존중을 배울 수 있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있게 한 각 모듈 교수님과 아산나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7개월간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던 6기 분들과의 인연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9월의 어느 날,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던 공간, 그 공간에 있던 분들의 따스한 눈빛으로 전해졌던 그 온도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략적 리더십에 대한 성공과 실패 경험을 함께한 아.세.내 팀원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소명의식을 일깨워준 한림화상재단,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마음의 온도로 기억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성장

김영경
(사)지구촌나눔운동



우리는 스마트 신인류가 만들어낸 혁명적인 시장 성장 및 기존의 정체성, 도덕, 윤리성이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조직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체와 내게 역시 직면한 과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로운 조직 문화와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시스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힘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 힘은 ‘사람’에게 나오며 그 사람들 모두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좋은 변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조금 더 본보기가 되고자 나는 올 한 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서 배운 것을 다시 단체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각자 다양한 지원동기가 있겠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은 내게 반드시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먼저 스스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리더의 기본이라는 교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모든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배움을 갈구했던 나는 다시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이 성찰과 더불어 감동적인 수업이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 근속자의 익숙함으로 인해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으로 인해 열기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열기로 인해 갈등이나 분열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갈등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교수님 말씀 또한 마음속 깊이 와 닿았고 나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매니저님, 팀장님, 교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응원과 지지가 되어준 동기생들, 특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울고 웃었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준 완벽주의 성향의 팀원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업무와 무관하게 해외를 나간 경험이 처음이기에 더욱 특별했던 해외연수였다. 다른 팀들보다 일정이 길었지만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후회 없이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고민을 경청하고 가장 좋은 피드백을 주고자 했던 고마운 동기생들 모두에게도 감사하고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과정들을 잘 정리하고 다듬어 새로운 모습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장한 내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도와 도전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조직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동기생 모두 변화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2017년 나를 가장 설레게 한 그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김영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올 한해 나를 가장 기쁘게 한 사건은 주저하지 않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합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년전 우연히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언제가는 기회를 잡아 반드시 이 과정에 참여하리라’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굳게 하였다.

현재 몸담은 직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역량 강화에 대한 아쉬움과 학습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에게 교육시키는 업무를 3년째 맡고 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경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발견하여 면접을 보고 합격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5월부터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생으로서 또 다른 삶을 살아왔다. 경영, 리더십, 사회혁신, 디자인 씽킹, 그리고 캡스톤으로 이루어진 과정은 영역별 국내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을 받기 위해 안국역에서 아산나눔재단까지의 오르막길은 항상 설렘이었다. ‘오늘 강의는 또 어떤 내용으로 나를 자극할까?’ 하는 기대감은 늘 그 이상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얻은 큰 행운은 무엇보다 동기들이다. 다양한 비영리기관의 각기 다른 직책과 연령이지만 ‘AFA 6기’라는 인연으로 만나 7개월간 함께 고민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동고동락(同苦同樂)’ 한 소중한 인연이다.

사소한 것부터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엄마의 마음’으로 파스하게 챙겨준 백민경 매니저님! 특별히 무한한 애정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 캡스톤으로 고민할 때 진심 어린 조언 등으로 함께 해주신 박지훈 팀장님께 애정을 담은 감사를 드린다. 훌륭한 과정으로 이끌어주신 이봉주 원장님과 방대옥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 드린다. 특히 캡스톤 프로젝트는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경험으로 나 자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김상범 교수님은 정말 오래도록 생각날 것 같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시작이 불과 얼마 전인듯한데 어느덧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아쉬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더 크다.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한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드는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로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한다.



AFA하는 포도

김영채
우리들의 눈



해외연수가 끝나고 예술교육 특강을 위해 다시 모였다. 신사옥에서 갖는 첫 수업이어서였을까, 나를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였을까. 그래도 지난 6개월간 매주 이들은 보아서 다들 익숙한 얼굴인데 한 달의 공백이 무어라고 어색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동기들을 처음 만났던 봄이 떠올랐다. 어색하게 첫인사를 나누던 워크샵, 어떤 배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던 마음, 수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깊어졌던 나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고민. 아직 얼어붙은 땅이 녹지 않은 듯 조금은 서먹하게 그러나 조용히 봄비가 스미듯 천천히 긴장과 이완을 배우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의지도 되고 용기도 얻을 수 있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전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고, 성큼 가을이 다가왔다.

올망졸망 매달린 보랏빛 포도송이에서 각자 먹을 포도 한 알을 떼어 낸다. 어떤 아이를 먹을까. 강사님이 잠시 머문 3초안에 재빠르게 스캔해 예쁘고 실한 놈으로 골랐다. 눈을 감고 포도 한 알을 입에 넣었다. 입안 가득 찬 이 존재가 너무 커다랗다는 생각을 했다.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려보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놀이본다. 달콤한 향을 시작으로 촉촉하게 터져 나온 포도는 예상외로 시큼한 맛과 함께 떫은 맛을 강하게 뽐어냈다. 텅 익은 걸 골랐나, 조금 말랑말랑 한 놈으로 집을 걸, 짧은 후회를 하는 동안 포도는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평소 먹던 포도보다 단맛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시큼 떨어뜸한 맛 뒤에 찾아와서였는지 유독 달게 느껴졌다. 이 짧은 달콤함을 더 붙잡고 싶었지만 포도는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충만했던 사랑이 이별하듯이, 새 생명의 기쁨이 소멸하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지, 그 시간 동안 이 존재를 오롯이 느끼고 음미하고 은유할 걸, 아쉬운 여운이 계속 남는다.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포도와 같다.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이란 비전이 탐스러워 보였다. 비영리 분야에서 제대로 성장 하고 싶다는 목마름은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크기인지도 모르고 한 알을 집어 들었다. 첫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주신 전략 모듈 과제를 시작으로 리더십, 재무회계, 인적자원 등 엄청난 양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배우며 일과 병행하다 보니 내가 너무 커다란 포도를 집어든 게 아닐까 걱정이 가득했다. 캡스톤을 기점으로 터져 나온 포도의 맛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팀원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최선인지,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들을 한데 모으고 탁월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토론, 갈등, 조정 그 모든 과정에서 휘감고 지나간 오색찬란한 맛의 향연은 때로는 너무 짧고 때로는 알싸했지만 팀원들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달콤한 끝 맛이 진한 여운으로 입안 가득 머금게 되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다양한 맛과 향이 모여 고스란히 나의 반짝이는 포도 한 알이 되었다. 아쉽지만 이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란 포도는 목 뒤로 삼켜 나의 자양분으로 만들고 다른 에너지로 발산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 포도를 뺏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과 수강생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운영한 팀장님, 매니저님, 인턴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나’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비영리 분야의 사관학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처음 알았던 것은 약 2년 전이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내부 교육 시스템의 부재와 장기적인 안목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 간사를 위한 교육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중견간부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는 점은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사실 도전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강의를 편하게 듣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모듈 별로 적지 않은 수업을 듣고 캡스톤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보고 무척 망설였던 것이 기억 납니다. 대학원 수업 이상의 몰입이 필요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라는 믿음과 함께 같은 비영리 분야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커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의 긴장감과 첫 수업시간의 각오와는 달리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제대로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캡스톤 프로젝트의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힘은 역시 수업을 함께한 동기들입니다. 모두 자신의 영역에서 막중한 업무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성실히 수업을 듣고, 진지하게 비영리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주 2회씩 수업을 가고, 조원들과 프로젝트를 위해 모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서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육에서 오는 배움보다는 스스로 잊고 있었던 사명감, 조직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수업과정이 지나고 나니 역시 생각나는 것은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비영리에서 앞으로 일을 계속해 나갈 후배들이 있다면, 어떤 여건에서도 반드시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더욱 발전해 비영리 분야의 사관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교육과정을 마치며

김정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설렘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교육과정이 초겨울에 어느덧 마무리 되었다. 이른 봄부터 치열한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서 얻은 합격의 기쁨과 함께 5월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으로 시작된 과정은 한여름의 더위와 싸워가며 매주 2회 수업과 과제를 해내면서 캡스톤 프로젝트 조원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과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성취감도 느꼈던 시간들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점이 변화가 되었고 성장하였는지를 뒤돌아 보았다.

첫째, 비영리조직의 본질과 비영리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의미를 정리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20년 이상 일하면서 복지와 관련된 환경 및 제도 변화에는 민감하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비영리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과 조직이 안고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에 대한 관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둘째, 전략적 리더십 실천의 중요성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개념과 실천방법을 다시 배울 수 있었고, 상황에 맞는 분석과 조직원들의 태업, 동기부여, 환경변화에 맞는 행동방법 등을 배우면서 조별과제를 통해 조직원들의 역동을 함께 체험하면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야 했던 캡스톤수업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리더십을 표현해야하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머리로,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셋째,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와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수 있었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사회변화가 비영리 조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운상가, 창업지원센터 등 혁신공간 방문과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존중과 신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7개월 동안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정성과 신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존중을 받으면 상대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신뢰는 곧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이제 마무리 되었지만 비영리분야에서 든든한 동료로 함께 할 30명 동기가 생겼고, 앞선 5기까지의 선배 동문들과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과 함께할 길은 결코 외롭거나 혼자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사회변화에도 다양한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동료들과 비영리기관의 새로운 공동사업까지 함께 하고픈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 지난 7개월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나의 한계에 부딪혀 이겨내기

김지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난봄, 오랜만에 보는 면전에 떨렸던 그 날이 생생히 기억난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길었던 수업 커리큘럼을 보며 과연 이 여정이 끝나는 날이 올까 했는데 벌써 수업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에 맞게 나를 프론티어로 이끌어 주는 과정이었다. 이름도 생소했던 캡스톤 수업,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해준 디자인씽킹, 실제 현장에 가보고 함께 이야기 나눴던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남 등..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나로서는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또한 다양한 수업 속에서 조별 모임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있는 동기분들과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고 공감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기회가 되었다. 한편,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로부터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비영리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와 근거를 배울 수 있었다. 직접 과제도 해보고 회계 강의 시간에는 연습 문제도 풀어 보는 등 정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적인 수업들이 매 시간 배정되어 있었다.

늘 우리를 불안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캡스톤 수업과 길고 길었던 리플렉션 메모..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알 수 없고 궁금증 투성이었던 캡스톤 수업이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되고 리플렉션 메모가 기다려지는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상황을 복기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 집중하여 나와 타인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나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조별 모임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경험들은 앞으로 큰 거름이 되어 나를 발전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해외방문연구조사야말로 진정한 프론티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었다. 해외의 선진 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들었던 것도 좋았지만, 특히나 6명 스스로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을 찾고, 각자 맡은 담당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며 조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던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다. 매일 강행군 속에 힘들었지만 닦신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며 노력했던 기억이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간직될 것 같다.

회사 업무와 수업을 함께 병행 해야하는 조건 속에서 사실 매주 2회씩 수업을 참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그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프론티어로서의 나를 만드는 가장 큰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계를 느끼고 부딪히고 그 것을 이겨내기, 그것이야말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진정한 정신이 아닐까.



만남, 배움, 성장, 나눔, 보람 그리고 다시 시작

박미경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모집공고를 처음 온라인으로 접했을 때, 나 스스로 ‘실력이 되면 도전해보야지’ 하며 나를 짝사랑을 소리 없이 키워왔다. 우연히 지인의 손에 이끌려 6기 과정에 지원서를 넣고 입문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여타 교육과정과 다른 신세계를 맛보게 해준 시간이었다. 다이어리에 매주 화·목요일 수업시간을 5월부터 12월 수료식까지 표시해 놓으면서 ‘출석만 채우고 내가 듣고 싶은 교육만 들으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 생각은 입학식 후, 바로 깨졌지만 말이다.

전략, 리더십, 마케팅, 인적자원, 재무회계, 캡스톤 등의 다양한 모듈별 수업은 내가 조직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시간이었다. 교수님별로 부여해주신 과제를 새벽까지 하면서 나에 대해 더 인식하며 객관적으로 나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초반 전략수업에서 과제제출 후 받은 과제 우수상은 과정에 더 열심히 참여할 원동력이 되었다. 내 생애 과제를 잘 했다고 칭찬받은 적이 처음인 듯 어린아이처럼 무지 신나고 즐거웠다.

누가 뭐라 해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서 즐거운 일, 힘든 일, 새로운 일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시간은 캡스톤 시간이었으리라... 매주 이어지는 리플렉션 메모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야말로 나에 대한 성찰과 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이었다. 도전하기 전에는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야말로 과정 내내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한 모든 상황들을 제공해주고 그에 따른 해결 능력을 또 한번 부여해준 것 같다.

조원들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눔 이야기가 생각난다. ‘정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프론티어를 체험하게 하네요!’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그러한 체험들이 나의 성장을 가져오게 했다. 나의 지적 성장이 아닌 의식의 성장과 그 이상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처음 입학식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수님들과 동기들, 운영진을 통한 배움, 그리고 이어지는 나의 성장. 이제 이렇게 받은 것들을 주위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보람을 얻고자 한다.

이제부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새로운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지속적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선물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화를 원했다. 조직 내에서 정체되어 있던 나도 싫었고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해매는 나도 싫었다. 조직을 떠나기보다 조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더 이상 감성적이고 혹은 감정적이고 혹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배움을 통해 나아감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다. 교육을 받으며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리란.

전략수업은 그동안 내가 조직의 일상적인 운동방식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닌지 큰 물음을 던져 주었다. 다양한 이론을 접목하여 실제 운동계획을 짜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었고, 조직에도 또 다른 물음을 던져 줄 기회를 제공해줬다. 리더십은 수업은 완벽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리더십을 무시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리더십 교육은 다시 낭만적이다. 내가 그간 느껴왔던 낭만이 아닌 체계적인 낭만이다. 그렇게 리더십에 매료됐다.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인적자원은 조직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가치를 심어주었다. 이문에 눈이 멀었다는 우스갯소리로 외면했던 재무회계는 조직을 보다 깊이있게 만나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회계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을 나눌 기회를 제공해줬다. 디자인씽킹은 인내와 활동의 즐거움을 다시 살려주는 시간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정말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캡스톤 수업은 완벽하다. 변화를 위해 온 나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인 듯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산나눔재단에 미안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찬사는 여기까지다. 왜냐면 난 이번 교육을 통해 위에 열거한 수많은 것들보다 더욱 완벽한 좋음을 만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 캡스톤 수업 때문에 하나로 묶였지만 내가 속한 4조 폐공장 멤버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 저녁 10시에 수업이 끝났음에도 우리는 남아서 프로젝트를 고민했다. 그러다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이 어떠한 의미이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싹트기도 했지만 우린 그 또한 즐기며 현명하게 헤쳐나갔다. 전체 교육 과정 중에 나를 진정한 변화로 이끈 것은 때론 친구 같고 때론 가족 같았던 우리 멤버들 덕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가 ‘아산나눔재단 교육은 어때?’라고 묻는다면 난 이들이 나누어준 사랑과 기억들 덕분에 그 무엇보다 너무나 완벽하다고 답할 것 같다. 그만큼 나에게 그들의 존재는 크다.

수료 수기의 성격에 맞지 않는 고백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이 이 글을 읽을 수도 있으니. 어쩌면 아산나눔재단 교육이 이러한 연결을 교육의 최대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으니. 영채야. 진제샘. 교육을 떠나 두 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함께 모여 웃으며 맥주를 마실 시간이 줄어들고 어떤 또 다른 감정의 변화들을 만나 서로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2017년 마지막을 향해가는 지금 이 순간 영채와 진제샘은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평생을 가까이 두고 사귀고 싶은 친구입니다. 두 분을 만난 이후 난 진정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무거움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하지만 두 분은 저에게 진심으로 선물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단순한 교육과정으로 끝나지 않게 끝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 준 두 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 사람이 답이다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리더가 되고 싶다.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고 싶다.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조직과 동료에게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고, 후배를 성장시키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필요했다.

시작부터 설렜다. 낯선 지식과 기술,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 학습과 독서의 압박은 점점 더 가슴이 벅차오르게 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긍정의 에너지, 열정이 증폭됐다.

6주 차(직장과 지위의 변동)를 기점으로 잦은 지각, 교육과 일 사이 줄타기로 집중도는 다소 하락했지만, 첫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캡스톤 프로젝트의 도움이 컸다. 부족한 시간을 만들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갈등 있는 관계를 이어가도록 했다. 무임승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최소한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했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네트워크 단체 ‘페지넷’으로 확장되었고, 현재진행형이다. 누가 뭐래도 지속가능성은 우리 팀이 단연 최고가 아닐까 자부한다. 비록 6기 교육과정은 수료하지만 우리 팀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그 중심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는 내 삶을 변화시킬 두 가지 키워드를 심어주었다.

#1.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배움은 행동으로 완성되고, 행동함으로써 또 다른 배움과 학습으로 선순환한다.

#2. 사람이 답이다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사람과 나누는 일상의 누적, 긴 호흡으로 연대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나 자신과의 만남 다시 열정 속으로!

백은경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대학입시나 취직 면접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던 순간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준비하던 기간이었습니다.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내 안에 가득했기에 더 부담되고 긴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 소식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는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를 앞두고 보니 처음 입학했을 때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잊고 있던 열정과 젊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뭔가 미친 듯이 도전해 보고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정말 기대 이상이면서 많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실패와 도전 속에서 현실의 내 모습을 보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겨내고 숨쉬고 있는 나를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내가 잘 해내서 무사히 수료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면서도 아쉽습니다. 매 순간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짜릿짜릿하게 한 아산나눔재단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2017년 연초에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만남과 관계 속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결고리로 묶인 동기사랑은 나라사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일도 바쁘고 힘든 가운데 ‘내가 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보다 더 치열하고 힘들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힘을 내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캡스톤을 통해서 모이고 떠돌고 꿈꿔보면서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 불편을 이겨내고 견디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무거운 불편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내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답을 찾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 내 현장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과연 현장은 누가 지켜야 하는 걸까요? 내 스스로 내 일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잘 지켜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기 및 후배들의 지지자로 사회적 변화와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이끄는 리더로 서고 싶습니다. 세상을 누군가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익힌 것처럼 전략적 리더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 아산나눔재단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현장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즐기는 6가지 방법

송민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즐기는 6가지 방법

1. 수업 있는 날을 공유하라.

일주일에 2번 화요일(4시 30분 ~ 9시 30분, 5시간), 목요일(6시30분 ~ 9시30분, 3시간). 공식적인 시간만 총 8시간이다. 조직의 윗분, 아랫분들에게 널리 널리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2. 일요일엔 가급적 약속을 잡지 마라.

캡스톤 리플렉션 메모, 과제제출, 프로젝트 모임 등 일요일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날이다. 이것을 잊고 다른 약속을 잡는다면 월요일 새벽 시간을 늘 맞이할 수 있다.

3. 용돈 아껴서.

전략, 캡스톤, 리더십 등 다양한 수업에서 사고 싶은 많은 책을 추천한다. 그러한 책들을 소지하고 싶다면 용돈을 아끼는 게 좋다. 물론 강의실 책장에 있는 책들은 대여도 가능하다.

4. 배달 도시락 어디까지 먹어봤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며 이렇게 다양한 배달 도시락이 있는지 새삼 경험한다. 배달 상태, 맛의 평가, 분리수거 방법까지. 도시락 배달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싫다면 당일 결석으로 못 먹어본 도시락이 발생한다.

5. 또 다른 나를 만나볼까.

한 조직의 중간관리자가 아닌, 배우는 학생의 입장, 팀원의 입장, 리더로서의 입장 등 주어진 역할이 다양하다. 그러면서 나인 듯, 내가 아닌 나 같은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6. 네트워크는 뭔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당신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만큼, 다시 당신에게 돌아간다. 그게 무엇이든.



프론티어, 나의 한계가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길

안효미
아름다운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을 돌아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 ‘목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왜 지원하게 되었나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처음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다. 단지 좋은 과정이라고 하니깐, 막연히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1차 서류, 2차 서류, 그리고 3차 면접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체계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과 전문적인 교수님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6기 동기들과 수업시간을 통해 만나게 된 비영리분야의 리더분들을 통해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하며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무엇보다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통해 더 큰 배움을 얻고자 했던 나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표를 했나요?

캡스톤에서 각 팀에서 정한 프로젝트 주제를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모든 팀의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은 각 팀의 주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체크했다. 그때 나는 얼떨결에 발표자가 되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함께 수업을 듣는 동기들에게 주제를 설명하기 보다는 교수님에게 설명하는 것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의 시선은 계속 교수님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발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후 일을 할 때면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물론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만...)

왜 이 일을 하나요?

끊임없이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업과 각자의 자리에서 뚜렷한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6기 동기들과 수업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무엇을 변화시키고 이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성취를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아직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중이어서 가끔은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싶어 힘들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근육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키웠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해 준 모든 분들에게 더 없이 감사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음을 함께할 오늘을 채워간 시간

이상엽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10년 전, 비영리기관인지도 모르고 입사해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 10년간 주변을 바라볼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저 날마다 치열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지내왔다. 입사 10년차, 설렘이라는 단어는 잊은 채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를 보내며 지내던 날들이었다. 지난 5월, 처장님의 권유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열떨결에 지원하며 합격할 거란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1, 2차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까지의 모든 과정이 내게는 신선한 도전이었다. 합격통보를 받고 첫 모임에 나가기 위해 나서는 그 순간! 그동안 잊고 지내온 설렘이라는 단어가 문득 다가왔다.

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 설렘의 여운을 미처 다 느끼기도 전에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주 2일의 수업과 과제들이 쏟아지며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었다. 새로운 도전이 주는 설렘과 함께 받은 선물은 전쟁 같은 일상의 시작.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접하며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10년 넘게 전산담당자로서 우물 안 개구리로 있던 나는 경영 모듈을 통해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게 되었다.

지금의 내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 디자인씽킹과 캡스톤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 생활 이후 처음으로 기계가 아닌 사람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특히 리더십 과정에서 ‘불안’과 ‘불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ㅇ’과 ‘ㅁ’ 서로 다른 단 하나의 자음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 몇 개월간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평간사로 시작해 선임 간사를 거쳐 팀장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 ‘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도 던져보았고, ‘나는 과연 괜찮은 리더였는가?’ 하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숙제를 갖게 되었다.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해본다.

생각보다 짧지 않았던 7개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전쟁같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끝까지 잘 버티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늘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나의 가족들 덕분이었다. 그리고 나의 부재 속에도 빈틈없이 업무를 채워준 우리 팀원들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사장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동기들, 열흘간의 시간을 이역만리에서 함께 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한 ‘무중력’팀, 그리고 무엇보다 아산나눔재단에 무한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일도, 생긴 것도, 성격도 모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30명이 7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달려왔다. 때로는 같은 생각에 무릎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충돌로 격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니,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 다름을 인정하고 다음을 약속하는 시간들이었음을. 내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렇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음을 함께하기 위한 오늘이 있는 곳’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란~

이영수

(사)청소년교육전략21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왜 지원하게 되었나요?

아카데미 신청 동기는 막막함과 간절함이다. 지난 15년간 비영리 청소년단체 실무자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단체의 사회적 역할은 더 넓어졌고, 나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정진홍 고문님의 말씀처럼 나는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였다. 매일 ‘과연 나는 준비된 리더인가? 앞으로 15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까?’를 질문했다. 마음의 답은 깊은 한숨이었다. 어느 날 홈페이지를 통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고, 2기 선배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나를 준비시키는 새로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참여 하였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씨줄과 날줄의 결합체이다’이다.

교육은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촘촘히 설계되었다. 인적자원과 전략, 리더십, 재무회계, 디자인씽킹, 캡스톤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교육과정과 최고의 교수진은 재단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최고의 산물이다. 리더십 모듈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디자인씽킹 워크샵은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었다. 캡스톤 모듈은 ‘사람과 일’에 대한 관찰과 소통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찰의 마음을 갖게 하였다. 아카데미의 또 다른 힘은 섬김의 마음이다.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30개의 연결된 점’이다.

‘하나의 점은 다른 점과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점들은 하나의 점으로 연결된다.’ 스티브 잡스는 청소년기에 차고에서 가졌던 경험(점)이 성공비결이라고 하였다. 아카데미의 소중한 자산은 30개의 연결된 점(동기)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색으로 세상을 그리고 있는 동기들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최고의 리더였다.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하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는 각자의 자원과 연결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면, 지금부터는 30명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연결 점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수로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점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다시 떠나는 먼 여행’이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신영복). 머리가 지식이고 생각이라면, 가슴은 공감이고 열정이다. 불과 30cm 밖에 되지 않지만 지식이 열정과 공감을 붙여 넣어줄 수 없다면 죽은 지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아카데미는 나의 지식과 생각을 넓혀주었고, 피터 드러커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마음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아직 또 하나의 먼 여행이 남아 있다. 바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발은 곧 행동이고 실천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가슴이 뜨겁다 하여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동안 가졌던 수많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은 한 순간의 과거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떠나는 먼 여행의 설렘을 기대하며,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는 6기 동기 여러분! 화이팅!



두렵지만 설레는 나의 혁신 도전기

이원태
(재)함께일하는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입성하다

첫 번째 수업 날, 거친 숨을 내몰며 패기 있게 아산나눔재단까지 바쁜 걸음으로 언덕을 올라가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비영리 기관의 중간관리자로서 한 번쯤은 지원하고 싶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그러나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하는, 수개월 인내의 과정을 버티며 이겨내야 하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까지 겸비한,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이 프로그램에 드디어 내가 입성하게 되었다.

화려한 라인업,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강사진과 운영진을 만나다

재치있는 입담에 더해 말에 힘을 가진 스피치의 연금술사 방대욱 대표님, “불안과 불만 사이” 마지막 수업의 이 문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의 지난한 자신과 싸움을 의미한다. 곱씹고 곱씹어 반추해야 한다. 경영학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면서 잊고 있던 경영학적 마인드를 끌어내 주시고, 경영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해준 김태영 교수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뽕기도 전에 선배들의 구전만으로도 카리스마를 풍겼던 캡스톤 수업, 때론

처절하게, 때론 거침없이, 때론 예리하게, 때론 미묘하게, 표현하시던 김상범 교수님의 언어 구사에 매료되기도 했다. 아산나눔재단 직원들에게도 정말 많이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멋진 분들과 함께 호흡할 일이 줄어드는게 안타깝고 서운하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잊고 지낸 일의 가치를 되돌아보다

지난 십여 년간 비영리에서 일하고 내 젊은 시절을 비영리 분야에서 보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엔 비영리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확신에 동기부여가 확실했고, 업무에 대한 열정도 끝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 현재 나는 아직 비영리에 있다. 단지 나의 일이며, 나의 업무일 뿐이고, 마음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다. 아니 냉랭하고 차가울 때가 더 많았다. 새삼스럽게도 연수기간 동안 방문한 기관 및 담당자들과 만남을 통해 노스텔지어에 흠뻑 젖어 일과 인생에 대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에 대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지향점과 목적 부합성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점을 선물 받았다. 다시금 소중한 나의 일에 가치라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력이 생기고 생명의 역동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직면, 인정, 실천

중간관리자, 중간리더, 리더는 항상 외롭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고민하고, 책임지고, 혼자 걸어야 할 때가 많다. 그와 동시에 동료들과 함께 걷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동료들을 품기 위해 해바라기 외사랑도 해야한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수면 아래에 있던 날 수면 위로 끌어올려 나의 치부와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직면케 하고 인정하게 해주었다. 사실 지금도, 앞으로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지난한 과정을 길고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터널 밖을 나와 햇살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말이다. 직면하고 인정하자, 그리고 실행하자. 자,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나~!



만남

이창신

홀트일산복지타운



새로운 도전을 만나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한지도 어느덧 20여 년, 근무하는 곳이 집에서 가깝고 거주시설이다 보니 일상생활에 큰 변화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늘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자신을 먼저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었는가? 이런 마음에 더 늦기 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만나다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었고, 동기들도 거의 안면이 없었습니다. 과제도 사용하는 용어도 대부분 생소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일기를 쓰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기들과 토론하면서 늘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만났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나태해지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나를 더 성찰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신을 만나다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은 사업가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곳이 아산나눔재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가정신을 살려 비영리 영역에 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입니다.

해리홀트씨도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한국의 전쟁고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긴급구호보다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쟁고아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에게 가정을 찾아주고자 돌아가실 때까지 전 재산을 바쳐가며 헌신하였습니다. 그곳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입니다. 아카데미는 두 분의 정신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였습니다. 한 분은 내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다른 한 분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이었습니다. 늘 이 질문 옆두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사람

임수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2017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다. 아직 1개월이 더 남아 있으나 이렇게 바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고민을 한 해는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다른 동기들도 매우 바쁘고 도전적인 한 해를 보냈으리라 생각한다. 그간의 나의 조직과 조직 속의 일들을 고민한, 그 조직 속에서 도전한 나의 모습을 평가한 한해였는데 그런 행동이 나의 한계와 가능성도 바라보게 했던 것 같다.

가장 좋았던 것은 결국 사람이었던 것 같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고 도전을 받았다.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와 모임들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내가 속한 조직은 도전의 시기였고 나에게도 도전의 시기였는데 만난 모든 사람이 나의 힘겨운 도전 과정의 격려자들과 지지자들이 되어 주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상황과 조건의 열악함에 많이 가 있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졌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한다. 사람이 상황과 조건을 극복해 내고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좋았던 것은 직위, 나이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였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일을 해보니 일이 한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경험이 나를 환경과 조건 앞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종강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추억과 기억들이 가슴 속에 남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를 위해 수고하고 도움주신 아산나눔재단과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

정명희
녹색연합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첫 수업에서 정진홍 교수님은 “내 생각을 다시 생각할 때, 이게 성찰이고 반성이고 회개고 깨달음이다.”라고 하셨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개월은 이 말씀을 계속 잡고 ‘생각을 다시 생각’했던 시간이었다.

익숙함으로 태업에 빠지려는 나를 계속 깨우는 시간, 습관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간, 불편함과 긴장을 저항하지 않고 견디는 시간, 순간적인 반응보다 어떻게 할지 선택을 연습하는 시간, 직관적으로 해 왔던 일에 체계를 만드는 시간, 살면서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질문들을 한꺼번에 계속 들으며 답을 찾아야 했던 시간, 듣고 보게 된 것을 복기하고 나누는 시간, 지나간 실수에도 앞으로의 실수에도 너그러워지는 시간, 새로운 영역의 책을 읽어내는 시간, 견문을 넓힌다는 말의 뜻을 새삼 느끼는 시간, ‘리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고민한 시간,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록해 보는 시간.

7개월은 그런 시간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입학식. 나는 다짐처럼 “활동가로, 운동가로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동료들의 성장도 돕는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7개월의 시간을 보낸 나는 애초 내가 말한 성장이 어떤 목적과 방향인지, 본보기의 상은 무엇인지, 어떤 결과에 이르렀을 때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단어, 그래서 구체성이 없는 허구의 말에 불과했다는 걸 발견한다. 7개월 동안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많은 것들, 습관처럼 해 왔던 말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누군가 나에게 이 다짐을 이뤘냐고 묻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 ‘과정’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그 과정에 어떤 태도와 방법을 취하며 있어야 할지를 이제는 조금 알게 된 것 같다.

7개월 동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준 선물이다.



겨루기 보다 품새

정연갑
아름다운가게



어느덧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이 마무리되었네요. 새로운 설렘으로 시작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색함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매시간 따뜻하게 환대해준 아산나눔재단이 있어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선했습니다. 매시간 열과 성의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소홀히 보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많은 선생님들을 사로잡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쉽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리고 주변의 많은 피해와 배려를 통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한 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오랜만에 보살핌과 존중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실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경험을 쌓아온 30명의 동기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학습하는

과정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배려와 이해가 있었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소속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의 조화를 찾아보고, 끊임없이 리더십을 구현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서 함께 해준 동기들에게 매우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리더십 수업에서 ‘겨루기가 아니라 품새’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합니다. 요령에 익숙해지면서, 언제부터 자만에 빠지고, ‘왜?’ 를 생각하기보다 결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과정의 즐거움보다 결과에 대한 승패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중견 활동가와 조직의 중간 간부로서 지나온 과정과 경험에 대한 자기합리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주하고 2선에서 방어적으로 순간순간을 마주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저에게 교육보다 치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더 나빠지기 전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과 일의 방식을 반추해야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주위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 프론티어로서 오래도록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동기들.



새로운 나를 보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기분 좋은 설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나를 소개하며 한 말이 생각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 내 앞에 꽃길만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일은 끊임없이 계속 생기더라...” 나는 한 우물 속에서 20년 넘게 일하면 전문가로서의 위엄과 능숙함으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줄 알았던 착각 속에 있었고, 그 착각의 늪에서 빠져 나오고 싶은 갈망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문을 두드렸던 거 같다. 세상은 급변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공지능(AI)이 나오고, 사물 인터넷으로 세상은 사람이 없어도 척척 돌아가고, 밀레니얼 세대의 낮은 문화에 기죽어 있던 나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렇게 시작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7개월은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다.

한 조직의 부서장인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배운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디자인씽킹은 어느 과목 하나도 소홀할 수 없었던 중요한 배움의 장이었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 대표와의 만남의 장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설렘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오랜만에 뜨거운 열정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해 보고 싶다는 무모한 용기도 생겼던 거 같다.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의 리더십 유형을 보면서 ‘나는 어떤 리더일까? 나의 리더십은 이대로 괜찮은가? 앞으로 나는 어떤 리더십을 펼쳐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팔로워인가?’를 고민하면서 새롭게 나를 재디자인하고 싶었기도 하다. 또한 끝없는 모호함 속에서 전략적 리더십 실천을 고민해야 했던 캡스톤 수업은 새로운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운동장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었던 태업, 비공식적 권한 행사 등 그동안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을까? 답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새로운 그 무언가를 시도해 보고 싶은 기분 좋은 설렘에 흥분하고 있는 내 모습만으로도 나는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분명 성장통도 있겠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7개월의 시간이 밑거름되어 아주 훌륭한 진통제가 되어 즐거라 나는 믿는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친 네잎 클로버의 행운처럼 다가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동기들과 아낌없는 강의와 열정을 보여 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챙겨주셨던 아산나눔재단 운영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주면서 격려하고 응원했던 1조 B.O.X 조원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 서로 함께 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세상을 넓게 본다는 것

주순이
한국메세나협회



“나는 일찍이 하루 종일 생각에 골몰하였으나 잠깐 배운 것만 못하였으며 일찍이
발돋움하여 멀리 바라보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 넓게 보는 것만 못하였다.”
- 순자(荀子)

7개월간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안간힘을 쓰며 꺾충대던 나를 조금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었다. 교육을 통해 한결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회사 내외부적인 개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가 적었기에 늘
비영리기관 관리자에 딱 맞는 경영학 수업에 대한 갈증이 많았다. 그 간의
목마름이 수업을 통해 충분히 해갈된 느낌이다.

특히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수진의 전문적인 지식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 수업 종료 시간을 넘기는 열정을 경외한다. 전략적 사고 방식을 알려준
전략 수업, 처음 경험해 보고 그 실용성과 즉각적 실현성에 깜짝 놀란
디자인씽킹, 스타트업 기업들의 싱싱한 아이디어와 도전의 사례들을 직접 만나

감명받은 사회혁신 모듈, 교수님의 인간적 매력과 더불어
리더십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 색다른 리더십 모듈, 기업들의
획기적 마케팅 기법을 배울 수 있었고 직접 우리들 기관의
컨설팅도 진지하게 받을 수 있었던 마케팅 모듈,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배운 재무회계, 그리고 난생 처음 접하는, 깊이와
성찰과 인내가 절대 필요한 캠프스톤 수업까지... 모든 수업이
진심으로 유익하고 즐거웠다.

궁극적으로 좋은 리더는 조직의 작은 것부터 큰 그림까지
그릴 줄 알아야 하고, 고객과 팔로워들의 면면을 읽어야 하며
불편한 상황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끝없이 공부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과 의미는 알았으나 과연 나는
좋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다시 시작
되었다.

3조 소셜 어벤저스 멤버들과의 인연과 추억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프로젝트와 해외연수 등의 많은 시간을 조원들과
함께 하면서 의견이 때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 함께한
과정과 시간은 매우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긍정과 웃음
으로 힘든 프로젝트를 함께한 우리 조원들! 정리선생 김정희,
적극미녀 박미경, 겸손목사 김승훈, 영어파워 김미경, 야근
미녀 김지혜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더불어
배려와 친절로 7개월을 함께 해준 아산나눔재단에도 칭찬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자주 날개 짓’을 하듯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배움과 학습의 날개 짓을 멈추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 몸담은 회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를 찾아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한광희



처음처럼

가슴 설레고 욕심이 생기는 일이 생겼다. 2017년 3월 초순경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공고가 그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처음 접한 건 2013년 1기를 모집할 때 였지만, 주변 상황과 개인적 여건을 핑계로 그냥 흘려 보내야만 했다. 13년 넘게 NGO 활동을 해오면서 작년만큼 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적도 없었다. 고민 속에서도 언제나 가슴만큼은 ‘처음처럼’ 이란 단어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 현상과 가슴 뜨거움을 느꼈을 때, 일반 회사를 다니다 NGO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보였다. 꼭 붙고 싶었고, 꼭 배워보고 싶었다. 면접을 봤을 때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으나, 떨어지면 뒤도 안보겠다고 엄포를 댔던 기억이 난다. 배우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그러지 않았나 싶다.

도전정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늦깎이 방향을 하던 나에게 마음 공부와 지적 자극을 안겨주었던 시간이었다고 본다. OT 워크샵에서의 정진홍 고문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처음 들어본 캡스톤 수업, 리더십, 사회혁신과 디자인씽킹 등은 나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슴 뛰게 만들었다.

가슴 뛰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했다. 모든 수업에서 발표를 제일 먼저 해보겠다는 돌직구적인 생각을 말이다. 뒤에서 조용히 있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보자는 생각을 가졌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수업은 이런 나의 마음을 갖추어 가는데 충분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다시 시작이다.

벌써 7개월이 지났다. 매주 2회 이상 모여 수업을 하고, 캡스톤을 논의하며 보냈던 시간이 지나 수료를 앞두고 있다. 첫 수업부터 많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다. 소개해 준 책을 구입해 최대한 읽어보려고 결심을 해보았지만,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다만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얻었다. 메너리즘과 혼란에 빠졌던 생각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고, 좋은 인연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단체와 조직에서 내가 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단체에서 내가 정확히 어떤 포지션으로 했어야 했는지를 수업을 통해 느끼고 알 수 있었다. 내가 있었던 공간의 사람들이 아닌, 나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기들을 만날 수 있어, 간혀 있던 나의 생각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

이런 가슴 설레는 기회를 준 아산나눔재단과 스태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기 5조 아세내 (아름다운 세상은 내가만든다) 조원들과 함께 2017년을 만들 수 있어 더욱 감사하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허미영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부담과 긴장의 소용돌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시작된 이래, 수강생 모집 공고가 뜰 때면 우리 조직에서는 약간의 소란이 있습니다. 모두가 듣고 싶은 교육 1순위이기 때문에 나름 내부 경선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경선 기회가 올해는 저에게 찾아왔고 운 좋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매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 만큼 꼭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심사단계마다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감이 배가 됐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다행히 통과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레는 첫 만남, 그리고 두려움

입학식 전날 밤, 얼마 만에 그렇게 설레는 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자기소개를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하게 된 기쁨이 큰 만큼 설렘도 컸습니다. 하지만 밤잠을 설치고 참여한 입학식은 낯선 환경과 사람들, 너무나 엄숙한 분위기에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새삼 우물 안 개구리가 떠오르며 비상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정주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회

교육은 기대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뛰어넘어 매 순간 저를 도전과 고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채우고,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하기도 싫었던 새로운 상황, 환경에도 놓이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나를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나를 마주하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프론티어 정신으로 나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새삼 확인했으니 나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벗기고, 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험난한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이 그 길에 빛을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제6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Photo Album





6th ASAN FRONTIER ACADEMY



THE ASAN NANUM FOUNDATION



ASAN FRONTIER ACADEMY





2017. 05. 11
~ 2017. 12. 02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